전략

김장열의 '요것만'

리서치센터장 김장열

FED, 고압경제로 간다? 주식시장은 당분간 미 대선에 더 초점을



시장의 관심이었던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 과열 용인하고 이른바 Average Inflation Target(AIT)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과거 인플레이션 목표 2%를 하회했던 기간을 make-up하기 위해 상당기간 2%를 일정수준 상회하는 물가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의미이다. 일정 수준의 인플레를 용인하겠다는 FED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금리인상 재개 시점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완화될 것이다. 물론, 시장 참여자는 ATP 제도 채택을 지난 수개월간 어느정도 예상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발표가 주식시장자체를 추가적으로 견인할 굉장한/새로운/즉각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런 FED의 정책은 미국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하방경직성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FED의 통화정책 framework의 핵심이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보다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고용에 못 미치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 과열에 대해서 기계적인 긴축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에 주목한다. 이는 지난 2016년 말 옐런 의장이 언급한 고압 경제 (High-pressure economy, 재정정책과의 공조를 통해 노동시장의 과열을 유도, 총수요 및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음)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긍정적이다. 물론, 아직 안전한 백신이 확보되기 이전 상황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이 반복되는 한,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도를 단기에 높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Fed의 이런 변화에 대한 금융시장의 제대로 된 반응은 4분기 중반 경으로 기대되는 백신 임상 결과 시점에서 확인될 것이다.

당분간, Just-Go-성장주 및 시장 주도주와 관련 변수로는 미국 대선 9월 29일 (현지시간), 10월 15일, 10월 22일 세차례 대선 토론회의를 거치는 과정의 지지율 변동과 이에 따른 공약 (세율 인상/IT업체 반독점/약가인하/ 신재생산업 이슈 등)에 더 주목할 것이다.

한국 시장 자체는 코로나 확진 수백명 대에서 추가 상승폭/기간이 향후 1주내에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조정이 없는 한 한국내 코로나 확진자증가와 사회적 거리단계 상향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만의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대표주식 (시총 상위 TOP 10/ 언택트 성장주 (인터넷/게임)/ 2차전지 관련 등)은 미국 성장주와 상관성이 높고 수출 중심주는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국내 경제 우려에서는 비껴 나 있기에 이들이 기타 주식의 하락을 일정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1일 필자의 김장열의 '요것만' (일일 확진자 500명 이상, 코스피 2200, 삼성전자 53,600 원, SK하이닉스 69,500원, Naver 296,000원을 돌파/하회하 지만 않으면...)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확진자가 400명대까지 치솟았지만 코스피 및 주요 종목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생명/건강은 중요하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느냐 에 따라 다른 것이다.

<주요 지표>

8/31 (월)

중국 8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지수 컨센서스 51.1 이전치 51.1

중국 8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 지수 컨센서스 54.1 이전치 54.2

9/1 (화)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컨센서스 54.4 이전치 54.2

중국 8월 Caixin 제조업 PMI 컨센서스 52.3 이전치 52.8

한국 8월 수출 (전년대비) -컨센서스 11.0% 이전치 -7.1%

한국 8월 수입 (전년대비) 컨센서스 -14.9% 이전치 -11.6%

9/2 (수)

한국 8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컨센서스 0.6% 이전치 0.3%

한국 8월 근원물가 (전년대비) 이전치 - 0.7%

9/3 (목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컨센서스 54.4 이전치 54.2

중국 8월 Caixin 서비스업 PMI 지수 컨센서스 53.8 이전치 54.1

9/4 (금)

미국 8월 비농업부문 고용 (천건) 컨센서스 1,518 이전치 1,763

미국 8월 실업률 (%) 컨센서스 9.9 이전치 10.2

미국 8월 시간당 임금 (전년대비) 컨센서스 4.5% 이전치 4.8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연락처: 02-3779-3513 / Email: jay.kim1007@gmail.com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투자등급 4 단계	Buy (매수)	+15% 이상	51.1%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Hold (보유)	-15% ~+15%	1.9%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0.0%	
		Not Rated(투자의견없음)	등급보류	47.0%	
		합계		100.0%	